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행하는 것은 분열과 불화와 갈등만을 깨닫고 평안과 화평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월 26일 (토) 제 1715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미국인들 분열 아닌 통합 원한다!

### 모어인커먼, “정치적 양극화 아닌 공동 가치 추구 위해 노력” 설문 결과 보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 중 인종, 종교, 성 정체성, 출생지 등에 따라 ‘그들’을 배척하는 종족주의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개념을 확장해서 모두에 포용적인 미국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이 기성정치에 대한 변화의 상징이고 새로운 문화의 도래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치는 증오, 차별, 반목, 독설로 가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극우의 강성이 집권하는 경우가 이어졌다.

그 사이 미국은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확대돼 이보다도 양극화가 심해진 시절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극단적 양극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44% 가운데 31%가 ‘정말 많이 지지한다’는 반면, 지지하지 않는 55% 가운데 47%가 ‘정말 많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출구조사 결과로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적당히 지지하고 적

당히 반대하는 중간층이 매우 적고 양극단에 미국인이 대단히 많이 몰려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는 달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정치적 양극화라는 체계에 동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쟁점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미국을 보다 미국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작년 10월, 비영리단체 모어인커먼(More in Common)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국민 4분의 3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사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Hidden Tribes of America: A year-long project of More in Common launched in October 2018).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은 분열을 강화하기보다는 통합을 바라고 있고, 이에 맞추어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 엄마들이여, 조국을 위해 아기를 가져라!

### 뉴스위크, 중국 저출산 심각 보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은 3년 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뒤 부부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가지라고 요청하지만 좀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인구성장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던 중국이 지금은 여성과 배우자들에게 ‘국가’를 위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새로운 구호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그런 조치를 두고 “간섭적이고 몰이해하다”는 반응을 보인다(CHINA ASKS WOMEN TO ‘HAVE CHILDREN FOR THE COUNTRY’ AFTER DECADES OF CURBING POPULATION).

## ‘한 자녀 정책’ 폐지 3년...신생아 되레 줄어 부유해진 세대 결혼지연이 출산율 감소이유

오랫동안 중국은 늘어나는 인구 덕분에 역동적인 노동력을 발판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친 인구성장을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인구고령화가 더 큰 문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고령화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부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둘째 자녀를 갖도록 유도했다.

(3면으로 계속)



## 애국심 고취 & 국가적 정체성 함양으로 ‘소진된 다수’ 변형시켜라

동 보고서는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있는 미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준다. 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으로는, 급변하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 평균 임금의 정체 그리고 불안한 고용 현실 △9/11 테러 이후 계속되고 있는 테러 위협 △소셜 미디어의 “Echo-Chamber” 효과(같은 성향 가진 사람들끼리만, 반대편 쪽 얘기는 듣기 싫으니 귀 닫은 채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고립되고 특정 성향이 강화되는 현상) △케이블 TV나 다른 미디어의 당파주의(Fox vs, CNN)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없다는 자신감의 위축 등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좌에서 우까지 정치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인종 차별·성차별·성희롱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재의 정치적, 문화적 규범이 사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까지,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먼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들에 대해 묻고 그리고 1)이민, 2)인종과 사회적 정의 3)성과 성별 4)종교와 극단주의라는 4개 주제 중 한 개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을 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좌파부터 우파까지 총 7개의

숨겨진 별개 그룹, 종족(tribes)으로 구성됐다.

흔히 윙(wing)이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집단은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분의 2는 좌우 분열에 지친 ‘소진된 다수(The Exhausted Majority)’가 차지했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시론 김인환 목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워싱턴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a href="http://www.wmu.edu">www.wmu.edu</a>
--------------------	---	--

워싱턴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http://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었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원으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http://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mailto: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mailto:ks@mbts.edu); [www.mbts.edu](http://www.mbts.edu)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 발행인 칼럼 ●

### 자기애(自己愛)의 위험성(危險性)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는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사랑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랑의 균형 잡힌 시각(視覺)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멋진 조화(調和)를 일깨워 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렇다. 자신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있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 된다.

자기애(自己愛)가 삶의 출발점인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교회부흥을 논(論)한다 하여도 자신의 이익(利益)이나 정서(情緒)에 닿지 않으면 결국 자기애(自己愛)가 불쌍사납게 분출(噴出)된다. 자기애(自己愛)는 교회의 현재를 어지럽히고 미래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를 둘러 보라. 어려운 교회가 적잖이 있다. 왜 어려운가? 자기애(自己愛)로 충만(充滿)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나 허울 좋은 말로만 포장되어 있지 그 가슴 깊은 곳에는 자기애(自己愛)가 유유(悠悠)히 흐르기 때문이다.

일례(一例)로 은퇴가 임박(臨迫)했는데도 적절한 준비가 전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현안(懸案)이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다.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기애(自己愛)일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은퇴로 자신이 잊히기 싫고, 물러남으로 놓치기 싫은 그 무엇, 곧 자기애(自己愛) 여파(餘波)로 신음(呻吟)하는 교회가 한 둘이 아님은 부인할 수 없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우고 세움으로 아름다운 퇴장(退場)을 준비하였다. 모세는 떠났어도 준비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 더십 전수(傳受)의 최대수혜자(最大受惠者) 여호수아는 누구를 키우고 세웠는가? 유심(留心)히 성경을 살펴보아도 딱히 거론(擧論)할 인물은 없다. 여호수아를 이을 준비된 후계자 부재로 이스라엘이 암흑시대(暗黑時代)라 일컫는 사사시대(士師時代)를 맞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隨順)이었다. 누구도 쉽게 범접(犯接)할 수 없는 큰 리더인 여호수아, 하지만 그가 후계자를 키우는데 모세의 절반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 때문이 아닐까?

일전(日前)에 준비된 은퇴 후, 떠난 교회와 무관(無關)하게 자신의 새로운 사역을 힘 있게 펼쳐 가시는 목사님을 보았다. 은퇴하시기 7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 후임자를 염두(念頭)에 두시고 관찰과 침묵과 기도도 많은 시간을 보내신 후, 당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으셨고, 공동의회에 그 안건을 내놓아 통과시키셨다고 하셨다. 하나님과 교회 사랑이 자기애(自己愛)보다 크셨음이 분명하다.

자기애(自己愛)는 필요하지만, 그 위험성(危險性)은 분명히 있고, 크다. 자기애(自己愛)를 잘 다룬다면 큰 기쁨이,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 큰 고통이 따른다. 자기를 버림으로 진정한 자기애(自己愛)를 구현(具顯)할 수 있다.

## 목회자도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처치리더스.컴, 찰스 스톤 목사가 전하는 은혜로운 거절 방법 소개

목회자로서 필자(찰스 스톤, Charles Stone)는 일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런 요구들이 전적으로 필자의 선택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요구되는 일을 목사가 해줄 수 있는지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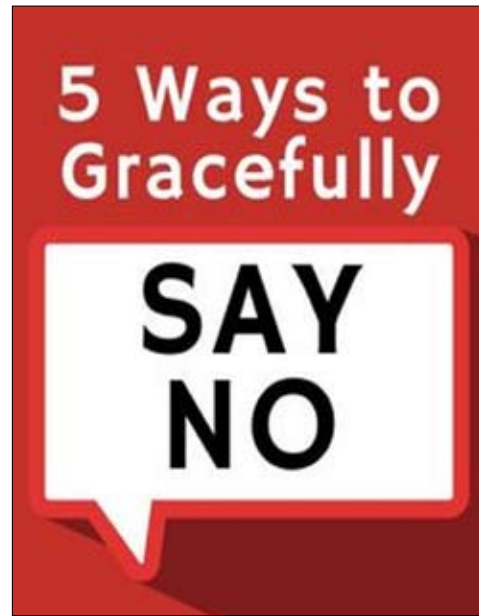
청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만나기를 바란다. 많은 경우, 'No'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속 깊숙이 알고 있지만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종종 'Yes'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가 정중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5 Ways to Gracefully Say No").

#### 1. 'No'란 단어를 쓰지 않고 'No'하기

어떤 상황에서는 거절이라는 말이 너무 강경하게 들릴 수도 있다. 때때로 이와 비슷한 다른 어구를 써서 대답을 순화시키지만, 여전히 거절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정말 일정이 지금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여력이 안 되네요. 하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되네요. 다음 주나 아니면 시간대가 맞는 때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것을 알고 있다. 이럴 경우, 단호하지만 정중한 거절이 적합하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편지 없는 감정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락하면 후회의 감정은 훨씬 더 오래가고, 지금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또 있을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몇 차례 독창적인 인물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피터 드러커의 대답이 흥미로워서 그대로 옮겨 본다.

“2월 14일에 쓴 친절한 편지에 정말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 동안 선생님과 선생님의 작품에 감명을 받아왔고, 상당히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독창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꾸준히 일하

### 거절 의미 전달할 수 있는 단어 사용 몇초간 생각, 확실치 않은 대답 미루기 전자우편으로 보내기, 거절 이유 설명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될 거 같아요.”

#### 2. 대답하기 전에 몇 초간 생각해 보기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서 종종 대답을 잘못해 수락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약속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대답하기 전에 몇 초간 잠시 멈추는 것을 배우야 한다. 거절이든 승낙이든 상관없이, 이 잠깐의 정지가 대답을 다시 구성하는 시간을 마련해줄 것이다. 또한 승낙한다면 잠깐의 정지가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도 줄 수 있다.

#### 3.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실치 않으면 대답을 미루기

가끔 질문에 논리가 있어서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 때도 있다. 이럴 경우, 지금은 대답할 수 없지만 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정말 거절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를 고려해 보고 정중한 거절의 틀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만약 상사가 다른 중요한 계획을 미루게 해야 하는 일을 요청한다면, 상황과 수락하고 싶은 마음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수락할 수 있도록 현재 약속의 우선사항을 어떻게 다시 계획할지에 대해 충고해 달라고 한다.

#### 4. 요청할 때 전자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기

누군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해서,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지워 거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필자는 종종 이들에게 전자 우편을 써 달라고 한다. 종종 사람들은 전자 우편으로 안 보내는데, 이럴 때는 거절을 못하게 된다.

#### 5. 단순히 그리고 친절하게 'No'라고 말하고 가능하면 이유도 설명하기

때로 바로 거절해야 한다는

지라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얼마 전에 그렉 맥커운(Greg McKeown)의 책(Essentialism: The Disciplined Pursuit of Less)을 읽었다. 강력 추천한다. 거절에 대하여 쓴 장에서, 그렉 맥커운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예전에 어떻게 거절했는지 쓰고 있다. 정중히 거절하는 아주 좋은 예이다. 여기 인용해 보겠다.

“필자의 견해에서 현대 경영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한 정중히 거절하는 기술의 대가였다. ‘몰임’에 대한 연구로 가장 잘 알려진 헝가리 교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가 독창성에

는 중입니다. 저는 독창성에 대해 믿지 않지만, 생산성의 비밀 중 하나는 선생님 같은 분의 방문을 모두 처리하는 엄청난 쓰레기통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제가 뻔뻔스럽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경험상 생산성은 다른 사람의 작품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떤 것인지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이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잘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진정한 본질주의자 피터 드러커는 “사람들이 거절할 때 효율적이다”라고 믿었다.

정중하게 'No'라고 말할 때 어떤 통찰력을 배웠는가?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 (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초교과 교회로써 지난48년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 (M. Div.)을 이수하신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또는미국에합법적으로체류하고계신분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분

- 제출서류**
1. 이력서및가족소개서
  2. 목회비전및신앙고백서(3 Page 미만)
  3. 최근설교2회분 동영상 또는CD/DVD/USB
  4. 목회안수 증명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6. 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만받습니다. (전화문의사절)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제출"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9년 2월 28일

**제출처** 1. 우편 2. 이메일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kcch2019@gmail.com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미성대학교 제4대 총장 초빙공고

미성대학교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총장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총장에 뜻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1. 미성대학교 설립정신에 투철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며 미성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2. 미주 성결교회의 헌법과 미국 연방 교육규에 결격사유가 없는 복음주의 신앙인
3. 미주 성결교회 혹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은 분. 혹은 미주 성결교회 목사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Letter 2매 이내) 1부
3. 대학 발전 및 운영계획서(Letter 10매 이내) 5부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5.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보내실 곳

**Rev. Kwang Soo Kim**  
3018 Hermosa Ave. La Crescenta CA 91214  
문의: kwangkim82@hotmail.com

#### 접수 마감

2019년 1월 21일(월) ~ 3월 16일(토)까지 도착 분

####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밀봉하여 송부 요망)
2.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미성대학교 이사장 김광수 목사**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올해의 인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을 선정합니다. 그 중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타임지는 주로 그 해에 사회에 가장 큰 영향(긍정적, 부정적)을 끼친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 신변에 위협을 무릅쓰

고 언론의 자유와 진실을 밝힌 언론인 '진실의 수호자들(the Guardians)'을 선정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누군지 궁금하시나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니면 올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한 방탄소년단(BTS)? 모두 아닙니다. 제가 선정한 그 분은 자신의 조국에서 설자리가 없어서 일찍 은퇴를 한 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홀로 베트남으로 떠났던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과파 리더십', '베트남에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사람', '베트남 히딩크', '살딩크', '영적 지도자' 등등... 모두 베트남에서 생긴 그의 별명입니다. 그는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인 스키 우스컵을 축구변방 베트남에게 선사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에게는 10년만의 경사였습니다. 제가 박항서 감독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같이 평범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대표팀과 프로팀 감독까지 했

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3부 리그감독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7번째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트남에서 '박항서 매직'의 성공을 이룬 후에도 그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나에게 기회를 준 베트남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범사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솔선수범형 리더입니다. 경기 후 직접 어린 선수들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경기 중 부상한 선수에게 비행기 비즈니즈좌석을 양보하고, 스키컵 우승포상금 10만달러 전액을 베트남 축구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베트남국가가 울려 퍼질 때 역대 베트남 외국인 축구감독 중 유일하게 가슴에 손을 얹어 베트남에

존경을 표하는 등등... 그가 베트남 선수들과 국민들을 감동시킨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기도의 사 람입니다. 선수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합 전에 선수들과 합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구했습니다. 휴경기 때는 경기 전에 교회에 가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중보기도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트남행을 결정할 때도 스키컵 우승 후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 한 일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크리스천 박항서 감독! 그 분을

2018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합니다.

세상은 박항서 감독의 성공을 '박항서 매직'(magic)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매직'이 아니라 남다른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를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남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의 섬김을 삶 속에 꾸준히 실천한다면 '올해의 인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시는 것이다. 너의 일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크리스천 박항서 감독! 그 분을

### 푸/른/초/장

박신욱 목사  
(SeedUSA 미주대표)



예수님께서 청년들을 훈련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년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청년들을 불러 훈련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왜 청년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 중요할까요?

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아직도 배울 수 있는 그 때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교회는 청년들을 예수님께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음 세대와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 마음이 어떠하리요! 답답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한 세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청년을 훈련해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고 믿었습니다. 천국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천국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신 예수님을 경탄했습니다. 그분의 능력 뿐 아니라, 겸손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평안과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5면으로 계속)

## 청년을 제자 삼는 교회 (마태복음 4장 18-22절)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동안 교회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의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3년간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제자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20대의 청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처자를 버렸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한 것을 보면 장모가 있었다는 베드로를 제외하고

는 제자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들을 3년간 훈련하신 후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게 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제자 삼아 교회를 세우셨다면, 오늘의 교

회도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야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천년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가 20대에 부르심을 받아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장년에 비해 청년은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때입니다. 성경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정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훈련되지 않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제자의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보일

첫째, 청년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로 보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교회의 전통을 배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제자 삼

www.rptseast.org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2019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9년 1월 2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9년 1월 2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9년 1월 28일(월)-1월 30일(수) 저녁 7시45분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718)637-1470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 성 국 박사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적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특별한 관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사람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수한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연인은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이 특별함으로 인해 삶을 함께 공유한다. 나아가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준다.

얼마 전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격분해 흥기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가 뉴스로 회자되었다.

고 쓰러진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한 말이 특별함이 무엇인가를 대변한다.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라." 아들이 휘두르는 흥기에 맞아 터지고 찢기며 자신이 흘린 피가 아들의 옷에 묻은 것을 보고 아들의 안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한 안타까운 모정이었다.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은 현실이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욕심이 잉태되어 있다. 욕심이 잉태되어 있기에 사단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다. 먼저 믿어 복음에 빛진 자가 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낫을 놓고도 그것이 기억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닮음이 없는 흑세무민(感世誼民)에 묶여 있는 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hanmac@cmi153.org



OC교협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오렌지카운티교협 이서 회장 연임 28회 정기총회...수석부회장에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는 17일(목) 오전 10시30분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제 28회 총회를 열고 이서 목사를 회장으로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사한다. 28대 교협을 많이 기도 해주셔서 하나 되어 섬기는 사랑으로 좋은 다리역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영 목사(큰빛감리교회)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미주비전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돼 민경영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했으며 은혜한인교회 여성합창단이 특송을 불렀다.

이어 윤우경 집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이사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분회 이사장)가 '꿈을 꾸게 하는 사역이 됩시다'(창37: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중대 장로(OC한인회장),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사장), 신원규 목사(좋은마을교회)가 축사했으며 윤성원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서 목사 사회로 열린 회의는 개회선언, 회의록 서기임명, 서기보고, 사역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이사회 보고, 28대 회장단 인준, 기타토의, 회의록 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13회 총동문의 밤 1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제2의 도약을" 동부개혁장신 제 13회 총동문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구 목사) 총동문화(회장 이종태 목사)가 주최한 제 13회 총동문의 밤이 지난 21일 저녁 심령이گان교회(이종태 목사)에서 열렸다.

2의 도약을 시작했다. 총동문화 역시 제2의 도약을 해야겠다"고 말하고 "동문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뤄지기를 소원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날 동문들은 초대학장 장영춘 목사를 회고하며 전임 학장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1부 예배는 이종태 목사(부회장, 18회), 성경봉독 최하숙 전도사(부회장, 14회), 찬양 재학생찬양대, 설교 이원호 목사(7회), 헌금특송 이종태 목사, 봉헌기도 이종원 목사(10회), 축사 노기승 목사(5회), 신학교소개 학

노기승 목사는 동부개혁장신을 졸업하고 미남침례신학교를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며 "동부개혁에서의 배움이 밀거름이 됐다"며 "교계에서 불법을 행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본 목사는 "격려 받아온 사람만이 격려할 수 있다"며 "멘토를 가지라"고 격려했다.

2부는 만찬과 퀴즈대회 등으로 친교를 나눴으며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유원정 기자)



제34회 마틴루터킹 퍼레이드가 'Healthy Bodies, Healthy Minds, Healthy Democracy'를 주제로 사우스 LA에서 열렸다. 사진은 그랜드마살로 초청된 전 국회의원 김영진 장로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Healthy Bodies, Minds, Democracy' 제 34회 마틴루터킹 퍼레이드 한인 동참

'비폭력 저항의 상징' 마틴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제 34회 킹덤데이 퍼레이드 행사가 21일 오전 10시15분 LA에서 펼쳐졌다.

'Healthy Bodies, Healthy Minds, Healthy Democracy'를 주제로 열린 이날 퍼레이드는 마틴루터킹 블러비드 수상 웨스턴 메뉴에서 시작, 크랜스 블러비드를 거쳐 버는 에비뉴까지 3마일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이 그랜드 마살로 참가했으며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허브 웨스 시의장,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퍼레이드는 흑인커뮤니티 단체들 외에 히스패닉들은 물론 한인커뮤니티에서도 참여해 마틴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평화정신을 함께 축하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영진 장로와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그리고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그랜드마살로 참여했으며 새에덴교회 전사합장단원들이 퍼레이드에 동참했다.

김영진 장로(전 국회의원)는 "마틴루터킹 퍼레이드에 20년째 계속 참석했으며 작년부터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살로 초대받아 참여하게 됐다"며 "마틴루터 킹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전진이 인류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지구촌 평화와 정의가 회복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응화 무용연구소 김응화 대표는 "해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퍼레이드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인과 별 차이 없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한국문화를 타인종들에게 선보이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공연을 통해 보여줌으로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퍼레이드에 앞서 20일 오후 5시30분,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세계문화스포츠재단(회장 전동석 목사)과 킹덤데이 퍼레이드 위원회 공동주최로 마틴루터 킹 레가시 디너파티를 가졌다.

맥시 워터스 거주하원의원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김영진 장로(전국회의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서영석 회장(민주평통LA)의 격려사와 이길소 목사(레이마미션 대표)의 마침기도로 끝맺었다.

(박준호 기자)



LA 카운티 116주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LA카운티 116주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

116주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이 15일 LA카운티에서 열렸다

다. 이날 행사는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와 남가

미주한인이민 116주년 기념 및 킹 퍼레이드 김영진 장로 그랜드마살 위촉기념 20주년 기념식

미주한인이민 116주년 기념 및 킹 퍼레이드 김영진 장로 그랜드마살 위촉기념 20주년 기념식이 20일 오후 2시30분 나성열린문교회(구 나성서부교회)에서 열렸다.

안신기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새에덴교회 전사합장단이 축가를 불렀으며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미주한인이민 116주년 기념 및 킹 퍼레이드 김영진 장로 그랜드마살 위촉기념 20주년 기념식에서 김영진 장로가 한기형 교협회장에 감사패를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이 함께 진행했다.

행사는 LA카운티 Supervisor chair-Janice Hahn, Kathryn Barger, Hilda Solis, Mark Ridley-Thomas, Supervisor-Sheila Kuehl 등 모든 수퍼바이저가 참석했고 150명의 타민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축하공연은 3명의 한인민족 광고팀이 연주했으며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다. 이어 황인상 부총영사와 이병만 미주한인재단회장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가시제공: 남가주교회교회협의회)

이어 김영진 장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한 뒤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인의 노래를 이날 행사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합창했다.

한편 기념식이 열리기 전 가진 1부 예배는 최대현 장로(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정경희 목사(여목사회 회장)가 성경봉독, 열린문교회 살롬권사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한기형 목사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학개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특송은 남가주교협 회장단이 맡았다.

(박준호 기자)









## “선교사역지의 필요를 위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남미아태아 대학원” (3)



**강성철 선교사**  
(GMS 브라질 남부지부장)

예를 들면 2018년 3월 3-5일 브라질 최초 선교사중 한분인 황문규 선교사를 초빙하여 “다문화가정사역과 선교” “PODER DO SONHO, AMOR E MISSAO”란 주제로 한국인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각각 강의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8-20일 홀리신학교 교수 박기호 박사를 모시고 9월 8일 G.P-BRASIL 컨퍼런스, 브라질GMS신학대학, 현지인 목회자 및 신학생대상, 9-10일 연합교회(담임 전도명 목사)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학술강좌 9월12-15일 아마존선교사 및 인디오 지도자 세미나(congresso Lideranca e Missoes AMAZONIA em FOCO), 9월 18-19일 파라과이 목회자 및 선교사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강의는 “타문화권의 교회개혁적 성장” “초창기 한국교회 및 선교사 교회개혁”이었다. 다국적이며 다양한 명강사들의 강의는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서 남미아태아 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전화가 자주 오고 있다

### 5. 아태아대학원 홍보대사 역할

중남미 선교이야기 보아스 노바스(Boas Novas) 책을 남미아태아 대학원 이름으로 펴내어 최근에 가진 세계전략선교대회에 발제자로 나가 아태아 대학원을 홍보하였다. 참석한 대회 및 모임은 △2018년 6월13-16일 GMS선교전략연구소장 학술모임(소집자 심창섭 박사, 화성에서) △2018년 6월 18-21일 부산수영로교회에서 열린 KWMA(NCOWE II) △2018년 6월 25-28일 GMS 세계선교대회 등에서 각각 발제자로 발표하면서 한국인선교 시각에서

본 미래지향적인 아태아대학원 및 남미아태아대학원에 대해서 발표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김성국)과 남미복음신문(박주성) 등 매스컴에 남미아태아대학원의 활동을 기사화 하고 연재하여 기고하며 홍보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6. 선교지에 필요한 아태아 대학원

다른 지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남미의 교회들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2018년 9월 3-6일 알렌턴 벨렐교회 수양관에서 가진 제 5회 남미선교사 재충전 수련회(Retiro espiritual de Restaviracion para los Misioneros) 선교사 전략 포럼 신학교 사역에 참여한 신학교 운영자들의 공동된 의견에서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과목들이 선교지에 유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 너무 이론에 치우쳐서 학문을 위한 학위중심의 신학이 되어 신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많은 부분이 목회현장과 선교사역에 별로 사용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의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사역에서 필요한 것을 발표하게 하였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서로의 필요성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종합해 보면:

- 1)경건과 전인적인 삶의 훈련의 필요성
- 2)선교지 사역에 필요한 통합적인 학문, 즉 선교지 신학교에서는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실제 목회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과목이 더 필요하다

천적인 교육이 피차간의 조화를 잃지 않고 온전한 수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므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회를 할 때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하였다.

3)목회와 선교의 통합적인 훈련의 필요성 - 신학교에서 경건 훈련을 받고 학문적인 지식을 얻었다면 주말에 이것을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4)선교지에 필요한 신학교 선교전략

(1)소수공동체 교육 - 제자훈련은 책을 가지고 주어진 단계를 마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몸으로 보여주며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하며 형제애를 나누어야 좋은 일꾼을 배출할 수 있다

(2)영성을 재장비 -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영성의 핵심은 역시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 우리의 사역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더구나 신학교는 미래 교회지도자들을 양육 훈련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진을 파괴할 성령의 능력과 권세 즉,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교현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3)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중세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웠다. 그 결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고백하며 성경 중심으로 가르칠 때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보다 신학과 교리를 우위에 두는 모습을 범함으로 한국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표준은 성경이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말세에 가장 큰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계1:3)이다 오직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한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성경은 최고의 표준이므로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kangsungchuel@gmail.com

## 원로칼럼

### 목회와 책(중)



**박종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한 권의 책, 나를 키운 소망의 한 권

타고난 가난 때문에 먹고사는 것도 힘들었고 학비 조달도 어려웠다. 거기다 마음대로 읽고 싶은 책을 사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필자의 책에 대한 열망을 부추긴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물려받은 유산이 단 한권의 책이 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언급했지만 필자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군이었고 교회 전도사였다. 경남지방에서 부농으로 살다가 사람 잘못 만난 탓으로 다 망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필자가 세 살 때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으로 떠나셨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쓰러져 가는 흙담집 방 한 칸에 ‘구약·신약’이라는 책 한 권뿐이었다.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가 아니라 물려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도 물려받은 그 한 권의 책을 보물단지처럼 소장하고 있다. 그 책 속엔 아버지의 신앙이 숨 쉬고 있고, 가난의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필자는 철들면서부터 책이 좋았다. 문월당 서점 점원으로 있을 때 훑고 배고프고 고생스러웠지만 책들 속에 파묻혀 나날을 보내고 책들 틈새에서 자고 깨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먹여주고 채워주는 조건으로 일했지만 어쩌다 수고했다고 돈을 주면 바로 책을 구입했다.

서가를 가득 채운 책들, 필자와 함께 50여 년을 숨 쉬며 지난 책들을 바라보고 펼 때마다 솟구치는 감회가 새롭다.

둘째는 교문사 고 한영제 장로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사고픈 책은 망고 살 돈은 없고 그래서 터득한 방법이 책방으 찾아가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이 책 저 책을 살피고 자리에 선 채 읽는 것이다.

특히 교문사를 자주 방문했다. 두세 시간을 선 채로 책을 뒤적이고 있는 필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 장로님이 “박 전도사님, 필요한 책 있으면 골라 가져가세요. 그리고 책값은 돈 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도 돼요”라고 하셨다. 이 한마디가 필자에겐 기본 소식이었다. “장로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 책 저 책을 꺼내 새끼줄로 묶어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좋고 뿌듯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고인이 되셨지만 한 장로님의 신뢰와 배려가 너무나 크고 고맙다.

셋째는 아내의 너그러움 이해 때문이었

다. 목회자의 아내 임장이라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외롭고 고달프고 힘겹고 쌓이는 스트레스는 천근만근이고. 그러나 1960년대 목회자의 아내는 힘겨운 생활과 까지 떠안고 살아야 했다.

필자의 경우는 더 각박하고 고달팠다. 노모를 모셔야 했고 세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유유 살 돈이 없어 제때 우유를 먹이지 못했고 밥을 갈아 먹어야 했다. 그런데 아내는 불평 한 마디 없이 현실을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외상도 돈인데 한 보따리씩 책을 사들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싫은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다. 그때 시냇말로 바가지를 굵고 사내 못 사내 양탈을 부렸다면 책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한마디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도 참고 또 참아준 아내가 고맙기 그지없다. 그 덕에 필자의 무모한 할부책 구입은 그칠 줄 모르고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넷째는 책을 좋아하는 필자 자신 때문이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책이었고 점원으로 들어간 곳이 서점이었던 탓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필자는 책을 좋아했다. 때 지난 신문지를 구하면 잘 모르는 한 자어가 섞여 있지만 읽고 또 읽었다. 남들이 보다 버린 헌 잡지는 구하면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글쓰기를 반복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셨던 여선생님(훗날 장로님 부인이 되셨다)은 필자에게 용기와 격려, 위로를 주셨고 신앙을 가르쳐 주셨다.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글 읽기, 글쓰기 그리고 바른말하기를 가르쳐 주셨고,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필자에게 노래 부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훌륭한 멘토를 만난 셈이다.

필자는 지금도 책을 좋아한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책들은 한권 한권 기쁜 사연들이 스며 있어서 필자가 아끼고 읽던 책을 그 누구에게도 선물하지 않는다.

이 얘길 쓰다 보니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 “K장로님, 잠깐 보고 돌려주겠다던 영어책 왜 지금까지 안 돌려줘요? 이 글을 읽거들랑 바로 보내주세요.” “L목사님, 잠깐 참고하고 가져온다면 그 책 왜 안 가져와요? 바로 가져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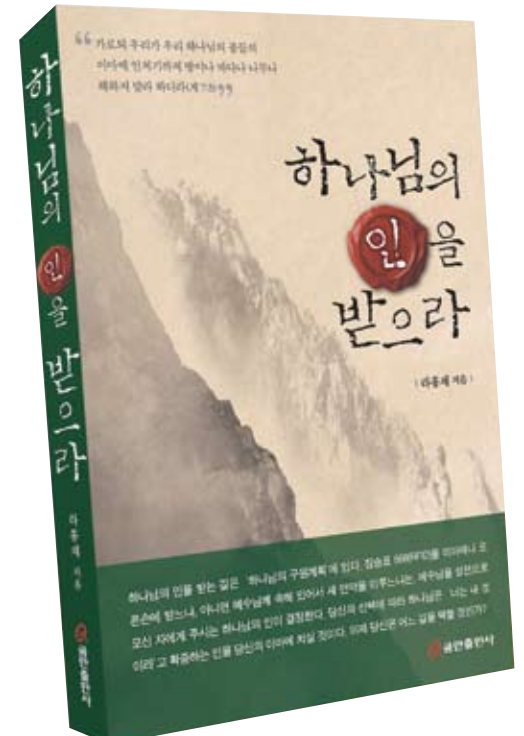
iamcspark@hanmail.net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드라마 구약(1)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어 성경이 읽어지네?’ 생터성경사역원(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사역원, 대표 이애실 사모) LA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덕수 목사는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경을 쉽게 읽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생장점을 터트리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통과하고 읽어간다면 그 어느 책보다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인 구원이 담겨있다고 김덕수 목사는 강조한다.

김덕수 목사가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구성된 성경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성경을 통독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게재한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늘 들었고, 또 읽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쉽게 잘 읽혀지지 않았다.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아담은 통치권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받은 통치

## 창세기-우리의 기원-대리통치권-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 홍수사건-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한 하나님나라 백성의 길

권은 대리통치권이였다.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만 아담이 인정하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아담이 늘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였다.

그 선악과나무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알람장치였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자유의지’를 발휘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맛ाय.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라고 고백했어야 한다. 그것을 고백하는 방법은 안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 사건, 즉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했던 사건 이후, 인류는 두 계열로 나뉘진다. 자기가 가진 힘과 폭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가인계열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예배공동체인 셋 계열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셋 공동체’를 타고 흘러간다. 그것을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족보의 끝은 노아다. 셋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셋 공동체가 가인 공동체와 섞였다.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다. 그래서 일어난 심판이 홍수사건이다.

홍수사건 이후 노아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셋 계열’인 생명공동체로 남아있어야 했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족보를 들여다보니까 또 ‘가인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니므롯’이다.

(창10:9-10)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 되었으며”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자기가 다스리고, 자신이 왕인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

것을 약속하신다.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영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내실 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인 생명을 얻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어내시는 이야기이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콜림하셨을 때, 행선지도 모른 채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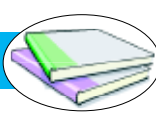
이삭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였다. 원래 자신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죽게 하셨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사건들과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건과 인물들이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난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 출애굽기가 시작된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성경에는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관심하셨던 기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430년 후에 정정만 603,550명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국가급의 인구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 국민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다.

### 책 소개



## “카무카무 무에”

저자 은희곤 목사

은희곤 목사(뉴욕침사랑교회)의 신앙에세이 “카무카무 무에”가 최근 출판됐다. 이 책은 필자가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에 지난 5년간 게재했던 “시론”을 모아 정리한



### 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

것이다. 저자가 소속된 미연합감리교회 감독인 정희수 목사는 추천의 말을 통해 이 책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변화와 기적, 감탄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답론”이라고 표현했다. 정 감독은 기적의 현장이라고 표현한 이민교회 목회 현장에서 문화적 전령, 선교적 전령이 되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더욱 체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감신대 왕대일 교수는 “시대가 알고 있는 온갖 부정에 대한 담금질을 목양의 언어로 강하게 토해냈다”고 말했다고 기감미주자치연회 김영민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의 지혜”라며 추천했다.

필자는 “인생의 주어가 뒤바뀐 대전환의 역사, 기억하고 또 확대증폭하고 싶어” 이 책을 출간했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책 제목 “카무카무 무에”는 우간다 말로 “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는 의미로 혼자자 아니라 주변의 만남 속에 한 마음으로 일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책은 제1부 네가 어디 있느냐? 주제아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 등 7편, 제2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크라테오!” 주제아래 “이 가을, 잃어버린 꿈을 꾸리라!” 등 14편, 제3부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제아래 “하나님 눈에 띄게” 등 14편, 제4부 감사와 행복이 꽃피는 삶 주제아래 “감사,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해줄 키워드” 등 11편, 제5부 하나님나라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 주제아래 “아름다운 비행” 등 18편으로 총 54편의 글을 실었다.

저자 은희곤 목사는 감신, 연세대연합심대원, 감신박사원을 졸업했다. 목회사역은 1982년 김포동산교회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뉴욕침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감 미주자치연회 감독으로 취임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e@midwest.edu